Issue Comment

제약/바이오

JPM 헬스케어 컨퍼런스 2026 리뷰 (관심 기업 중심)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5년 8월 12일

노보노디스크 (NOVOb.DK)
시장 TP 500.8DKK I CP 320.1DKK

일라이릴리 (LLY.US)
시장 TP 915.74USD I CP 635.22USD

Analyst 김선아 seona.kim@hanafn.com
RA 유창근 changkeunyoo@hanafn.com

한미약품 코멘트: Merck(MSD) 4Q25 실적발표에서 다시 체크

이번 Merck의 발표에서 efinopegdutide가 '26년 카탈리스트 또는 중장기 전망의 블로버스터 중 하나로 소개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전혀 언급되지 않아 시장에 실망감을 주었다. 그러나 이번에 Merck는 어떤 적응증이든 임상2상 결과를 확인한 이력이 있거나 27년 내 임상3상 completion date 설정이 가능한 파이프라인을 위주로 중장기 전망을 발표하였다. Efinopegdutide는 기존의 MASH 치료제의 임상3상 기간(8~9년)을 고려하면 27년 내 3상 결과까지 보기 어렵다 (다만 기존 치료제들이 3상 진행 중에 가속승인 됨을 참고). JPMHC에서만 중장기 전망 파이프라인 소개 방식을 바꾼 것이라면, 다음 달 Merck의 4Q25 실적발표(2월3일, 9:00 am ET)에서 efinopegdutide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과 함께 주가는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한다.

눈에 띄는 주요 기업 (설명 순서는 중요도와 무관함)

1) [MSD]는 키트루다SC의 시장 확대 전략을 강조했다. 미국 시장의 30~40% 점유율 달성할 것이라는 목표는 유지했고, J-code 발부로 매출 성장이 느린 6개월을 지나면 빠른 매출 성장(2Q26부터 예상)이 기대된다. 2) [Pfizer]는 Metsera 인수로 확보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Ultra-Long-Acting"을 강조한 점이 특이사항이다. 또한 작년 3S bio로부터 인수한 PD-1xVEGF인 PF-4404의 Pivotal 임상과, Nectin-4 타겟 ADC인 PADCEV의 적응증 확장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3) [AstraZeneca]는 26년 내 비만치료제 관련 3개 이상의 임상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 다양한 접근(이중항체, T cell 인게이져, CAR-T) 방법으로 항암제 개발 중인데 이중타겟을 강조하였다. 4) [Roche]의 경우 알츠하이머 치료제 Trontinemab은 이제 갓 임상3상에 진입하여, '25년에 확보해 둔 비만과 MASH가 주요한 이벤트가 될 듯 하다. 5) [Eli Lilly]는 초기 알츠하이머 시장을 미충족 수요가 높은 주요 시장으로 보고 있음을 밝혔고, 예상한 바대로 ADC, 방사선의약품, siRNA,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니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6) [Sandoz]에서도 개발 중인 SC 제형으로 오크레부스, 다잘렉스 다음으로 키트루다와 비브가르트가 포함되었다. 키트루다를 제외하면 모두 Halozyme의 Enhanze를 사용하고 있어, 알테오젠과 공동개발 중인 히알루로니다제로 치환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 외에, [BMS]가 오름테라퓨틱으로부터 기술양수한 CD33-GSPT1을 2030년까지의 주요 파이프라인 중 하나로 언급하였고, [Biohaven]도 FGFR3-ADC 파이프라인을 26년 상반기 임상1상 진행할 파이프라인으로 명시하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6년 생산능력 다양화 목표 중 6공장 건설 검토(시기 미정)를 언급하였으니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JPMHC는 아직 진행 중이고, 마지막 날(우리나라 날짜로 16일)에는 디앤디파마텍, 알테오젠, 휴젤이 발표할 예정이다. 흥미로운 소식이 있는 경우 리포트로 또 공유하고자 한다.

1. Merck & co.(MSD)

1) Merck의 핵심 자산인 키트루다의 SC관련 코멘트

LOE(독점권 상실) 전 SC로 전환한 환자 pool 확보해 키트루다 IV 가격 인하에 대응

① 향후 18~24개월 내 미국 시장의 30~40% 점유율 달성할 것.

② 초기 6개월은 J-code(약제비용청구코드) 발부를 기다리는 시기로 매출이 뚜렷하지 않을 것이나, 이후 크게 성장할 것임.

③ 단독 또는 Lynparza(PARP 저해제), Welireg(HIF-2α 저해제)와 같은 경구용 항암제와 먼저 쓰이게 될 가능성 높음. 이후 IV 제제와의 병용으로도 확산될 것이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 예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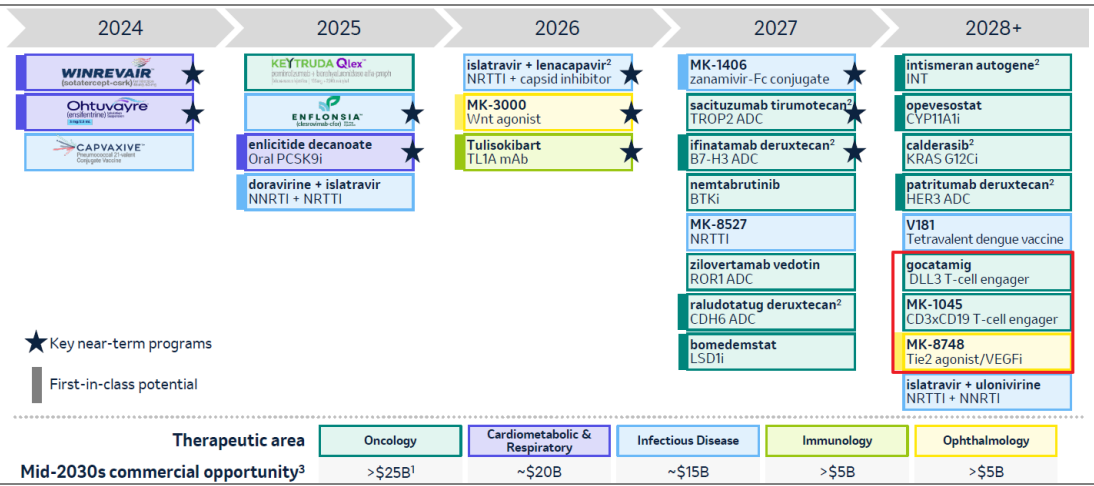
2) efinopegdutide 부재의 이유 (한미약품에 대한 긍정적 전망 유지)

28년 내 임상3상 종료 예상이 가능한 파이프라인만 언급

이번 Merck의 발표에서 efinopegdutide가 '26년 카탈리스트 또는 중장기 전망의 블로버스터 중 하나로 소개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아 시장에 실망감을 주었다. 그러나 이번에 Merck는 모호하고 보수적으로 블록버스터 후보군을 언급한 것 같다. 1) 파이프라인에 적응증을 기재하지 않아 해당 파이프라인의 무슨 임상을 기대하는지도 알기 어렵지만(모호함), 후보군은 2) 어떤 적응증이든 임상2상 결과를 확인한 이력이 있거나 27년 내 임상3상 completion date 설정이 가능한 파이프라인이고, 3) 겨우 임상2상 중이지만 리스트업 된 파이프라인은 모두 공통적으로 open-label로 약효를 추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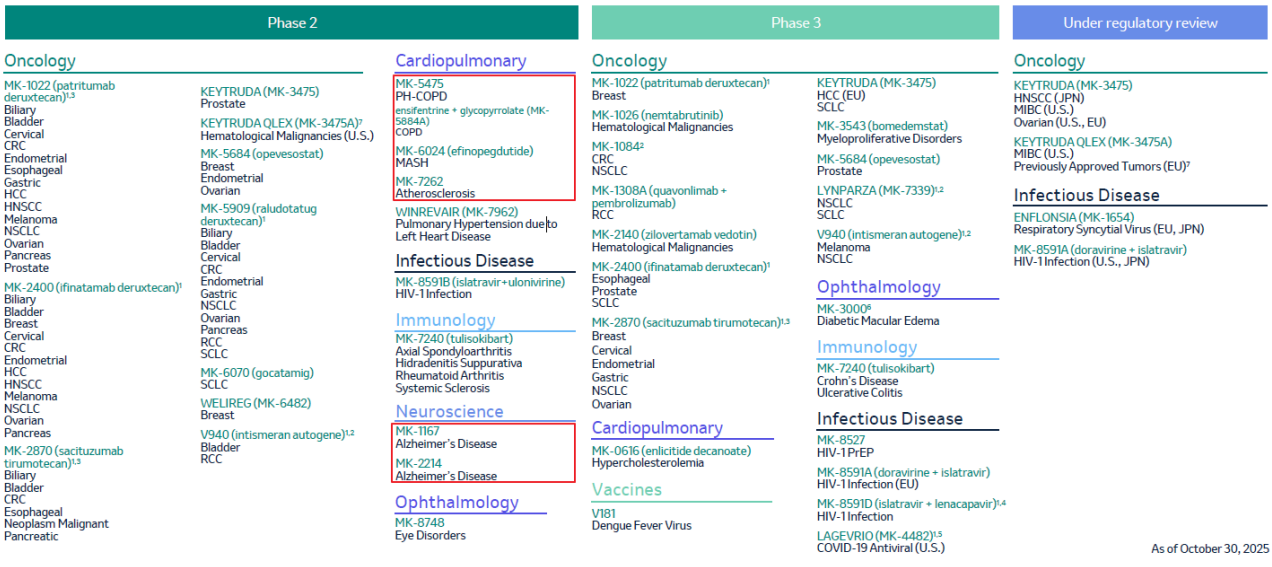
3Q25 실적발표(2025년10월30일)에서 임상2상 중으로 공개되었음에도 JPM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파이프라인은 MK-5474 (COPD), MK-1167/2214 (알츠하이머), MK-7262 (동맥경화증), 및 MK-6024 (efinopegdutide, MASH)인데, 모두 공통적으로 Double-blind로 임상을 진행중이다. 아울러 MASH 치료제인 Resmetirome은 임상3상에서 9년(MAESTRO-NASH), Semaglutide는 8년(ESSENCE)으로 설계된걸 고려하면, 26년에 성공적인 결과를 보더라도 가시적인 기간 내 3상 completion date 설정은 불가하다(단, 가속승인되는 경향). 현재 efinopegdutide의 2b상은 Clinical trials에 "Completed"로 상태가 변경되었다. JPMHC에서만 파이프라인 소개 방식을 바꾼 것이라면, 다음 달인 2월3일(9:00 am ET) 4Q25 실적발표에서 efinopegdutide에 대한 업데이트와 함께 주가는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한다.

도표1. JPMHC 2026에서 Merck가 "블록버스터 후보군"으로 언급한 파이프라인



주1: 붉은 박스에서 gocatamig와 MK-1045는 임상2상 중이지만 open-label이고, MK-8748은 같은 안과 치료제 MK-3000(BRUNELLO 임상)으로 보아 3상 기간 2년에 불과함
주2: 해당 도식에 "Timing above represents approval date for marketed products or earliest Phase 3 primary completion date according to clinicaltrials.gov for pipeline compounds" 언급
자료: JPMHC 2026 Merck presentation, 하나증권

도표2. Merck의 3분기 실적 발표 상 파이프라인 리스트 (2025.10.30)



주1: 붉은 박스는 이번 JPMHC에서 공개되지 않았고, 모두 double-blind로 임상 중
자료: 3Q25 Merck earning call, 하나증권

2. Pfizer

1) 26년 카탈리스트 중심의 발표

비만은 Ultra-Long-Acting, PD-1xVEGF 속도전, Nectin-4 타겟 ADC인 PADCEV의 적응증 확대

25년 JPMHC에서는 임상1상부터 상용화된 약물의 적응증 확장 임상까지 전체 파이프라인의 개발 현황을 보여줬는데, 올해는 26년 카탈리스트 중심으로 파이프라인을 소개하였다. 1)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5년에 인수한 Metsera의 비만 치료제로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Ultra-Long-Acting" 수식어로써 회사의 개발 전략과 관심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2) '25년에 중국의 3S bio로부터 인수한 PD-1xVEGF인 PF-4404는 4개의 암종 1차 치료제로 평가중인 임상 결과를 공개할 전망이다. 3) Nectin-4 타겟의 기승인 ADC인 PADCEV의 적응증 확장 임상도 올해 눈여겨 볼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Pfizer가 공식적으로 제시한 올해 전력의 핵심은 Seagen/Biohaven/Metsera 등 기업인수 가치 극대화, 주요 R&D 마일스톤 달성, '28년 이후 성장을 겨냥한 선제 투자, AI 적용 확산이다.

2) Pfizer의 비만 치료제 개발 전략 관련 회사 코멘트 요약

Amylin과의 병용도 관심 큰 듯 28년 초 출시를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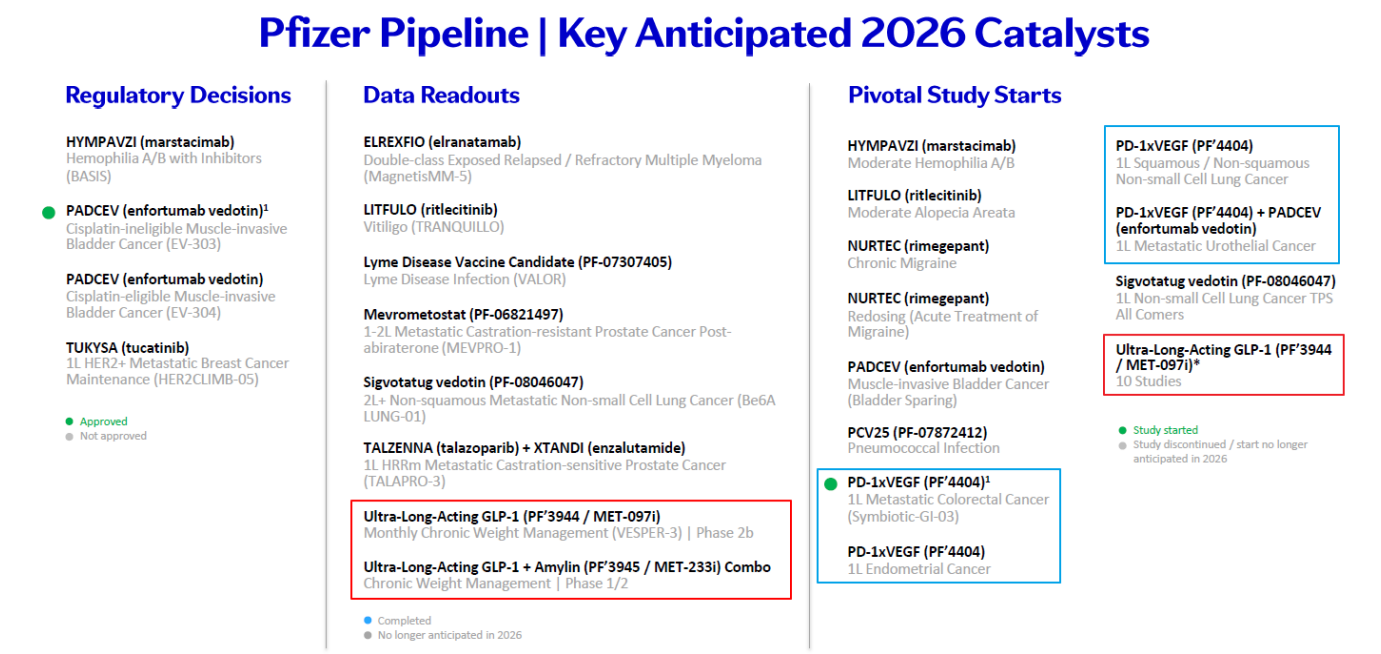
① 미국의 비만 시장은 약 30%가 자비 부담하는데, 이는 비아그라와 유사함. 즉, 현금 시장 비중이 예상 보다 훨씬 크고, 보험 의존도가 낮은 소비자 주도형(consumer-driven) 시장임

② Metsera 인수로 Ultra-long-acting GLP-1 외 경구제, Amylin도 확보했고, 모두 임상 진행 중임(그러나 카탈리스트 상 Ultra-Long-Acting 순서가 우선한 분위기)

③ '26년 중 임상3상 총 10개 개시할 것. 그 중 25년 말 1개 착수. '28년 출시 목표.

④ Amylin 단독 요법에서 36일이라는 이른 시점에 위약 대비 -8.4% 체중 감소량 확인. GLP-1 병용은 가장 중요한 미공개 카드. 병용은 내약성 개선 및 체중 감소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

도표3. JPMHC 2026에서 Pfizer가 "2026년 주요 카탈리스트" 로 언급한 파이프라인



주1: NBRx: 붉은 박스는 Metsera 인수로 확보한 비만 치료제, 파란 박스는 3S bio로부터 인수한 PD-1xVEGF임
자료: JPMHC 2026 Pfizer presentation, 하나증권

3. AstraZeneca

1) 비만을 제외하면,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항암제 개발 중

핵심 개발 분야는
1) 체중 관리 및 CV 위험 조절
2) ADC
3) 이중타겟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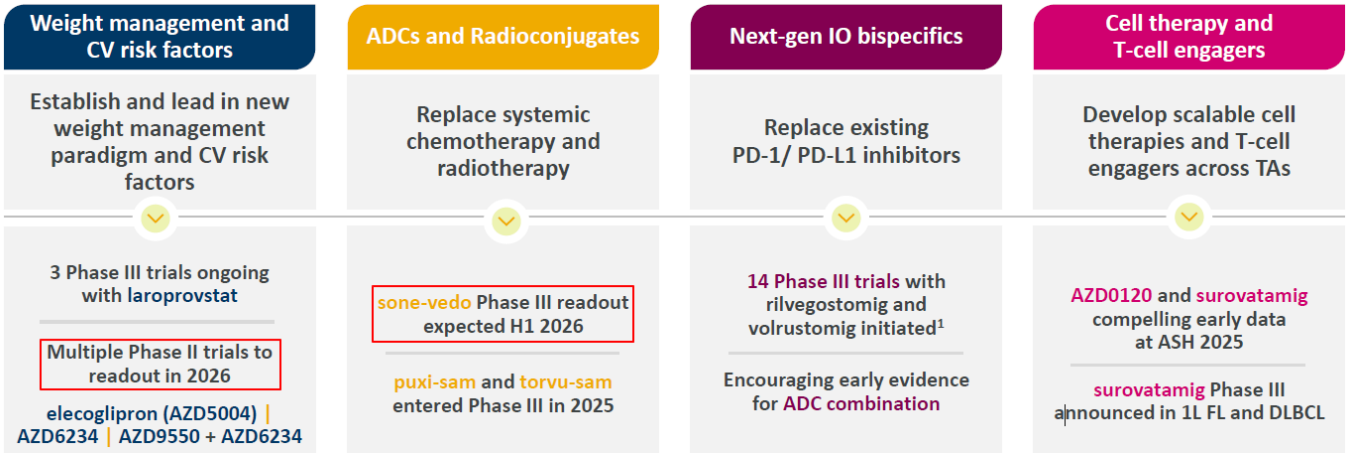
대사질환에서는 고콜레스테롤 혈증 치료제 Laroprovstat(경구용, PCSK9 저해제)와 비만치료제 Elecoglipron(GLP-1R, 저분자 화합물), AZD6234(Amylin 유사체), AZD9550(GLP-1R/GCGR dual agonist)를 핵심 약물로 언급했다. 이 중 비만치료제들은 2026년 내 주요한 임상2상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ADC로는 B7-H3 표적인 Sonevatamab vedotin(-VC-MMAE), B7-H4 표적인 Puxisatamab samrotecan(-VA-Top1i), FRα 표적인 Torvutatug samrotecan(-VA-Top1i)이 언급되었다. 이 중 B7-H3 ADC인 Sonevatamab vedotin은 올해 상반기 중 임상3상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다.

ADC를 제외한 항암제 분야는 이중 타겟이 눈에 띈다. 차세대 면역항암제(IO)도 이중항체로서 기존의 PD-1/PD-L1 저해제를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으로, Rilvegostomig(PD-1×TIGIT)와 Volrustomig(PD-1×CTLA-4)에 대해서만 14개의 임상3상을 진행 중이다.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언급한 AZD6243 (BCMA/CD19 dual-targeting)은 CAR-T면서 이중 타겟이고, surovatamig(CD19×CD3)도 T cell 인게이져로서 이중 타겟이다.

항암제 중 비소세포성폐암(NSCLC), 유방암, 및 위암은 구체적인 개발 전략을 공개하여 회사가 집중하는 영역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JPMHC 2026 Appedix의 항암제 개발 map 참고)

도표4. JPMHC 2026에서 AstraZeneca가 공개한 핵심 분야



주1: Sone-vedo, Sonevatamab vedotin; Puxi-sam, Puxisatamab samrotecan; Torvu-sam, Torvutatug samrotecan
주2: 붉은 박스는 2026년 중 임상 결과 공개 예정인 파이프라인
자료: JPMHC 2026 AZ presentation, 하나증권

4. Roche

1) 올해까지는 비만과 MASH, '27년에 알츠하이머 중장기 전망 보일 듯

25년 보다 선택과 집중하는 듯, 주요 성과인 알츠하이머 언급X

Roche는 올해 작년 대비 간결한 presentation을 보였다. 작년('25년)에는 유방암 세부 카테고리 확장, 혈액학 분야에서 CAR-T 포트폴리오 강화, 혈우병A의 SoC 향상, 알츠하이머 치료제 Trontinemab/ 다발성 경화증/ TL1A 타겟 항체/ST2 항체 Astegolimab/ 황반부종 치료제 Vamikibart/ 비만치료제/ RNAi인 Zilebesiran의 성과, 개발 방향 또는 적응증 확대에 대한 전략을 각 분야별로 상세히 보여주었다. 반면 올해('26년) JPMHC에서는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분해제(SERD)인 Giredestrant와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Fenebrutinib의 개발 전략과 성과에 대한 설명만 포함되었다.

의외인 점은 올해 임상3상에 진입하는 Trontinemab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다. 글로벌 1,600명을 대상으로 약 3년(TRONTIER)의 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장기 임상에 갓 진입한 상태이니 당분간 업데이트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

비만 치료제 관련하여 '25년 JPMHC에서 "특이적인 조합(Obesity: Potential to differentiate through unique combinations)"을 강조했는데, 당시 타 비만치료제 개발사와 비교하여 Roche가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Amylin 유사체를 그 해 3월 Zealand pharma로부터 기술인수하였다 (Petrelintide). 올해는 Pfizer가 비만 치료제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Roche의 포트폴리오에서 "장기지속형(월1회)"이 유일하게 부족한 듯하다. '25년 내 89bio 인수를 통해 확보한 MASH 치료제 Pegozafermin를 포함하여, 올해 중에 총 5개의 신약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3상 진입 가능한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다.

도표5. JPMHC 2026에서 Roche가 공개한 올해 주요 마일스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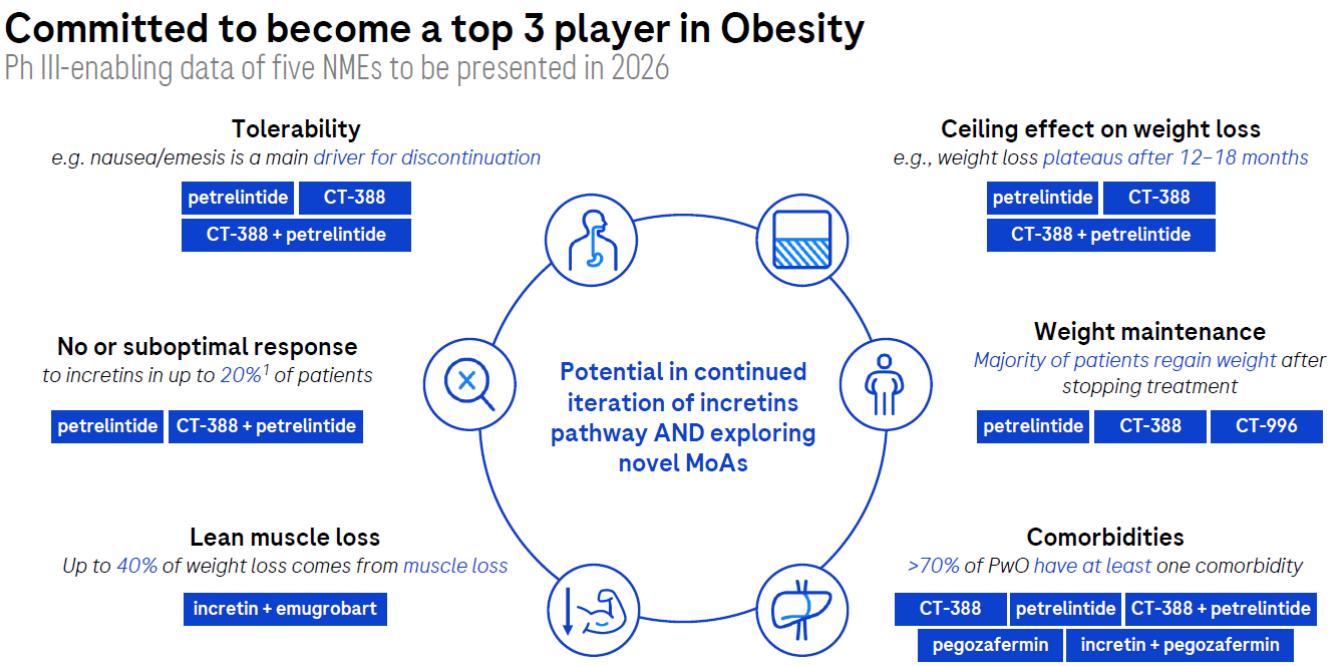
2026: Key newsflow outlook*

Giredestrant + everolimus (post CDKi ER+/HER2- mBC) filed in US

	Compound	Indication	Milestone
Regulatory	giredestrant	adjuvant ER+/HER2- early BC	US/EU filing
	giredestrant + everolimus	post CDKi ER+/HER2- mBC	EU filing/US approval
	Gazyva	SLE	US/EU filing
	Gazyva	INS	US/EU filing
	satralizumab	TED	US filing
	vamikibart	UME	US/EU filing
	Susvimo	nAMD	EU approval
	Susvimo	DME	EU filing
	PiaSky	aHUS	US/EU filing
	Lunsumio + Polivy	2L+ DLBCL	US approval
Clinical results	divarasib	2L KRASG12C+ NSCLC	Ph III KRASCENDO 1
	giredestrant + palbociclib	1L ER+/HER2- mBC	Ph III persevERA
	Itovebi + fulvestrant	post CDKi HR+ mBC	Ph III INAVO121
	Itovebi + Phesgo	*PIK3CA*-mut HER2+ mBC	Ph III INAVO122
	Lunsumio + lenalidomide	2L+ FL	Ph III CELESTIMO
	Enspryng	MOG-AD	Ph III METEOROID
	fenebrutinib	RMS	Ph III FENhance 1/2
	Gazyva	MN	Ph III MAJESTY
	sefaxersen	IgAN	Ph III IMAGINATION
	Vabysmo	CNV	Ph III POYANG
	Evrysdi + emugrobart	SMA	Ph II MANATEE
	emugrobart	FSHD	Ph II MANOEUVRE
	emugrobart + tirzepatide	Obesity	Ph II GYMINDA
	CT-388 (QW SC)	Obesity	Ph II
	CT-868 (QD SC)	T1D with Obesity	Ph II
	CT-996 (QD oral)	Obesity	Ph II
	petrelintide	Obesity	Ph II ZUPREME-1/2

자료: JPMHC 2026 Roche presentation, 하나증권

도표6. JPMHC 2026에서 Roche가 공개한 비만치료제 포트폴리오



자료: JPMHC 2026 Roche presentation, 하나증권

5. Eli Lilly

1) 비만치료제는 올해도 성장할 것, 파이프라인 확장 전략에 관심

비만치료제는 가격 보다는 볼륨, 2Q26 Orforglipron 승인 예상 FDA 승인 후 곧장 글로벌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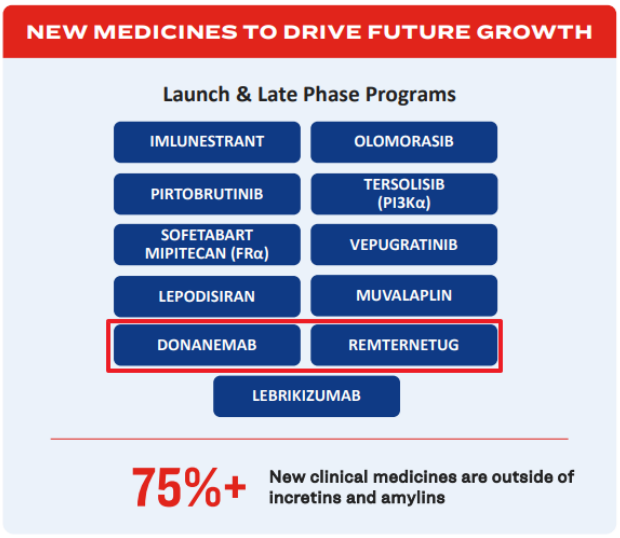
Tirzepatide의 '25년 과제는 공급 불확실성이었다면, 현재 거의 다 해결하여 30개 이상의 글로벌 시장에 출시를 완료하였다. LillyDirect는 가격 투명성, 재처방 및 리필에 대한 환자 통제권, 비만 외 다른 질환의로의 확장을 핵심 가치로 삼고 시장을 공고히 지켜나갈 계획이다. 차기 비만 제품인 경구제 Orforglipron은 Commissioner's Priority Review 프로그램으로 2026년 2Q에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법적 데드라인은 없음). 1) Orforglipron과 statin 병용 제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약물 상호작용 시험이 끝나지 않아 초기 임상 프로토콜상 제한이 있었을 뿐, 라벨/상업적 측면에서 문제 없을 것이라 답변하였다. 2) Medicare 영역에서는 "전당뇨의 당뇨로의 전환을 93% 감소"한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inclusion criteria를 채택한 점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3) 사보험에서는 가격 투명성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4) 약가 인하 경쟁으로 인한 high single-digit 수준의 가격 디플레이션을 전망하나, 핵심 변수는 가격이 아니라 볼륨이고 매출 성장은 유지할 것이라 답하였다 (+Orforglipron 출시).

2) Donanemab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 있을까

Donanemab 물질특허 '31년 개발 방향을 설계할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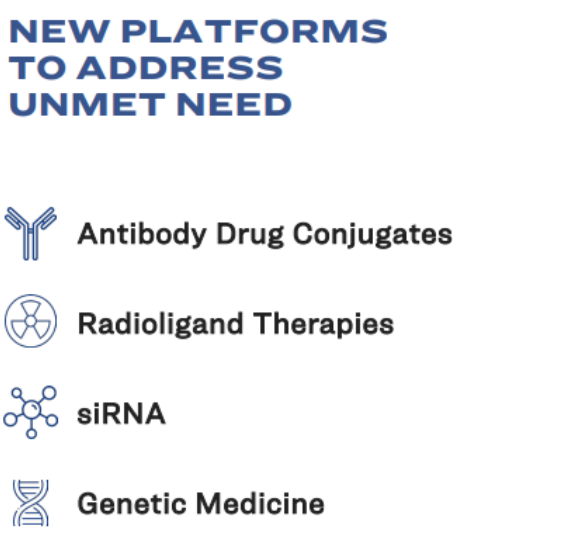
Lilly는 이번 JPMHC 2026 발표에 의하면, 초기 알츠하이머 시장을 고지혈증, 만성통증, 초기 유방암과 함께 미충족 수요가 높은 주요 시장으로 보고 있다. 출시에 먼저 성공한 Donanemab 다음 주자인 Remternetug의 임상3상 결과(TRAILBLAZER-3)는 2027년 공개할 예정이다. 궁금한 것은 FDA 기승인 받은 Donanemab의 물질특허(US 8679498) 기준상 2031년 만료 예정인데, 추가 개발을 할지 여부이다. 일단 이번 발표로는 두 파이프라인의 중요도를 판단하긴 어려우나, Remternetug의 임상 결과에 따라 향후 개발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Donanemab은 1) ARIA 부작용 감소, 2) 피하제형으로 변경 등 경쟁약물인 Ezai의 Lecanemab과 비교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는 판단이다.

도표7. Lilly가 생각하는 미래 성장을 이끌 파이프라인



주: 붉은 박스가 알츠하이머 치료제
자료: JPMHC 2026 Lilly presentation, 하나증권

도표8. Lilly가 타겟하는 신규 플랫폼



자료: JPMHC 2026 Lilly presentation, 하나증권

6. Sando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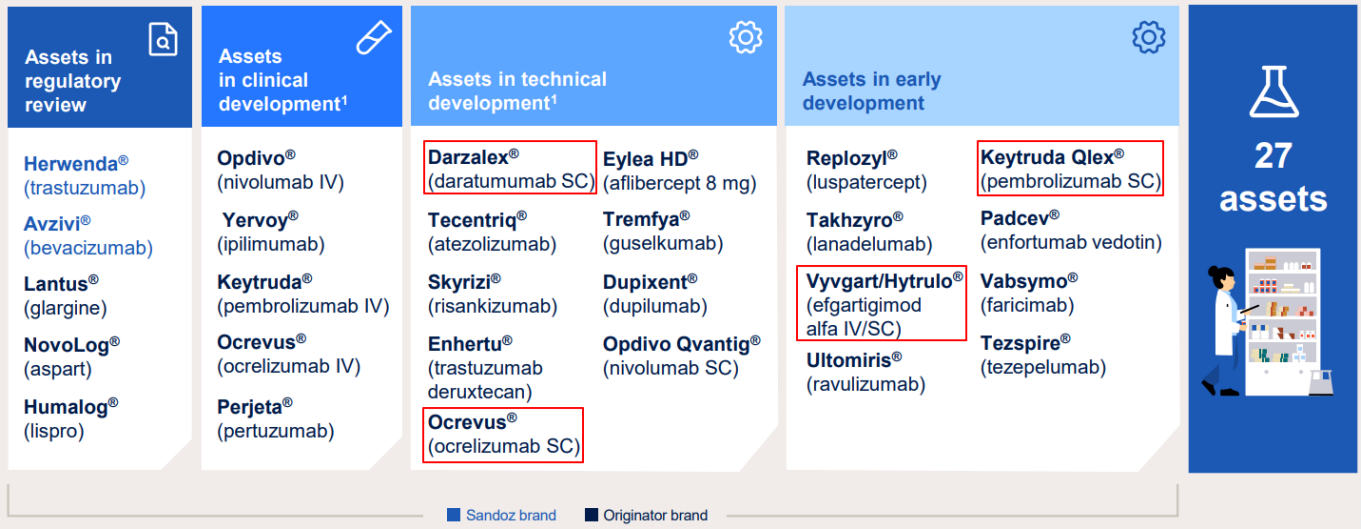
1) 오크레부스, 다잘렉스 BS에서 SC 제품 추가

키트루다 SC, 비브가르트 SC 추가됨

Sandoz는 순수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에 집중하는 기업으로서, 파이프라인 확장이 눈에 띈다. 독점권 상실되어 열리게 될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320bil, 제네릭 시장은 $340bil로 전망하고 있고, 그 LoE 될 제품 중 바이오시밀러 59%, 제네릭 65%을 개발 중이다. 이번에 9개의 신규 Asset을 공개하면서 총 27개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개발 중인 것을 밝혔다. 눈여겨 볼 점은, 작년에 공개한 오크레부스 및 다잘렉스의 SC제형에 더하여 키트루다 및 비브가르트의 SC제형이 포함된 것이다.

Sandoz와 알테오젠은 '24년 ALT-B4에 대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히알루로니다제에 대한 신규 공동개발 및 L/O 계약을 맺은 바 있어, Sandoz 전용 히알루로니다제를 개발 중인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andoz가 이번 JPMHC에서 공개한 파이프라인 중 키트루다를 제외하고 모두 Halozyme의 Enhanze를 적용하고 있고, 당연히 제형 특허로 보호 받고 있거나 보호를 시도 중(심사 중으로써 등록 전)이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에 대한 도전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겠으나, 알테오젠과의 공동개발이 성공한다면 Sandoz가 계획하는 SC제형인 바이오시밀러는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

도표9. JPMHC 2026에서 Sandoz가 공개한 27의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주: 붉은 박스는 Halozyme의 Enhanze를 적용하는 SC 제형 오리지널
자료: JPMHC 2026 Sandoz presentation, 하나증권

7. 그 외 주요 기업 코멘트

1) BMS: 주요 관심사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CD33-GSPT1은 확인

오름테라퓨틱 관련 연내 업데이트 소식 있을지 주목

2030년까지 10개 이상의 신약을 런칭하겠다는 전망을 밝히며, 2029+년 항목에 CD33-GSPT1 파이프라인을 언급하였다. 해당 파이프라인은 오름테라퓨틱에서 기술 양도(총 1억 8,000만달러 규모 = 약2,400억원)한 것으로 AML 치료제로 개발 중이다. 기술 양도한 것이므로 BMS가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계약상 수령 예정인 마일스톤 외에 일반적인 개발 단계별 마일스톤이나 로열티를 수령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항체분해약물접합체(DAC) 플랫폼을 적용하여 개발에 성공한 첫 사례가 되므로, 향후 오름의 추가 기술이전에 중요하다.

2) Biohaven: FGFR3-ADC 파이프라인 리스트업

에임드바이오로부터 L/I한 것, 26년 내 데이터 발표 예상

Biohaven이 작년 12월 우울증 신약 BHV-7000의 임상2상 실패로 개발 중단하면서, 전체 파이프라인 중 후순위 포지션인 항암제 분야의 개발 차질을 우려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JPMHC에서 공개한 '26년 주요 마일스톤에서 2026년 상반기에 임상1상 진행 계획임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작년 5월에 첫 환자 투약에 들어갔으므로, 올해는 용량 증량 투약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하반기 중간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3) 삼성바이오로직스: '26년 생산능력 다양화 목표

6공장 건설 검토 언급, 제3바이오캠퍼스 활용 계획 발표

이번 JPMHC 관련 동사 홈페이지 상의 Press Releases에 따르면, 1) '26년 생산능력 다양화 면에서 제2바이오캠퍼스 내 6공장 건설을 검토를 언급하였다. 어느 분기인지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지 않은 점은 아쉽다. 2) 제3바이오캠퍼스 부지 확보 목적도 밝혔는데, ▲항체접합치료제(AXC) ▲항체백신 ▲세포·유전자치료제(CGT) 등 멀티 모달리티 생산시설 건립이다. 3) 송도 제2바이오캠퍼스에 건립 예정인 오픈이노베이션 센터를 통해 유망 바이오텍과의 협업을 강화할 것임을 밝혀, 협업이 가능한 바이오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도표10. JPMHC 2026에서 Biohaven이 공개한 파이프라인

주: 붉은 박스는 에임드바이오가 기술이전한 ADC
자료: JPMHC 2026 Biohaven presentation,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선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5년 8월 12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선아)는 2025년 8월 12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